영국의 산업의 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차철환

영국은 국명을 Great Britain 또는 북부 Ireland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라고 칭한다. 면적 24.4만㎢, 인구 5,765만명(1991년)이다. 역사적으로는 대영제국으로 오랫동안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1760년대에 섬유공업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알려졌다. 1802년에 제정된 「건강과 도덕보전에 관한 법률」은 세계 최초의 공장법으로서 후에 각국에서 공장법을 제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현재 산업보건의 근거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1974년의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HSWA)이다. 이 법에는 사용주가 고용된 노동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니도록 하고 있다.

1. 산업의 계약

HSWA 및 관련법규의 법체계에 기업이나 사용주는 산업의를 선임할 의무는 없다. 산업의의 선임이나 산업보건조직의 설립·편성은 사용주의 주체성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용주는 특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집행하도록 사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93년 HSE(안전위생집행위원회)의 기초 보고에 따르면 상근 또는 비상근 의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4%이고, 노동자 212명에 대해 의사 1명의 비율이었다. 한편 의사에 국한시키지 않은 다른 보건영역의 전문가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3%였다.

또한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적 자격을 가진자가 한명 이상 있는 민간 기업의 비율은 50% 미만이고 공기업에는 74%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산업의의 실태

산업의는 상근자가 800~1,500명, 비상근자가 약 750~4,000명으로 자료에 의한 추정수가 상이하다. 산업의는 등록된 의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이어야만 하고, 이외의 법적인 조건은 없다. 이러한 선임의무나 자격요건이 없는 점이 인원추정의 폭을 넓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대기업에서는 복수의 산업의와 충실한 간호 Staff, 위생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 Team을 편성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상근 또는 비상근의 의사가 간호원의 협력을 얻어 산업보건 업

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산업보건에 관심있는 그 지역의 임상의(GP)가 대부분이다.

산업의가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AFOM (Associate of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이나 Diploma in Industrial Health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 산업의가 되기 위해서는 3~4년 과정 졸업후 임상연수를 거치고 4년간의 산업의학 전문연수 후 실제 경험을 쌓으면서 The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의 전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The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은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전문부회로서 학문적 수준의 향상, 교육, 훈련, 전문의의 인정 등을 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기본적인 산업의 실무 및 학문적 지식을 인정하기 위해 Associate of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AFOM)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는 Associate(AFOM)의 인정을 준다. 또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를 정식 Member(MFOM)로서 인정해서 전문의로 간주한다. 그리고 Member중에서 경험이나 공적이 뛰어난 자를 투표하여 Fellow(FFOM)로 선출한다.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자에게 상응하는 권위를 주는 것이 영국의 제도라 말할 수 있다.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은 1994년 7월부터 상기 조직의 기관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FOM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산업의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전문단체로서 The Society of Occupational Medicine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 회원수 1,700명으로 조사·연구보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3. 산업의의 활동 내용

영국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용시 건강진단과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위생집행위원회(HSE)에서는 이런 일반적 검진이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직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용주의 실시책임과 근로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질에 대한 규정내용을 보면 건강진단의 계획단계로부터 실시항목, 방법, 빈도, 대상자의 선정, 판정기준의 설정, 적용, 사후조치 등에 이를때까지 의사의 자유재량권이 크게 나타나며,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교적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형태의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사업장에서는 산업의에게 산업의학적인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자 역할을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의는 원칙적으로 치료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GP나 전문임상의와의 상담을 통해 행하기도 한다.

산업간호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시에 의사와 협력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위생사의 전문성이 확립되어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인간공학 전문가를 고용하여 학술적인 team을 편성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직장순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의의 필수업무이다.

4. 기타

영국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특징은 General Practioner(GP)를 중심으로 한 Primary Care와 의료비의 국고부담 원칙이다. 최근에는 국가주도로 환자위주의 의료(Working for Patients)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많은 의사가 자신의 진료활동을 감사하게끔 되었다. 이 감사는 계통적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의의 대다수가 NHS 계통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보건활동의 의의를 내외로 표시할 목적으로 또는 생애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Audit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AFOM시험의 출제내용에도 삽입되고 있다.

정부기구로서 고용성(雇用省) 밑에 국가안전위

생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 HSC)를 두고 그 집행상의 하부조직인 안전위생위원회(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를 두고 있다. 기업에 대한 출입조사, 조업정지, 개선명령, 제소 등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은 HSE의 관할하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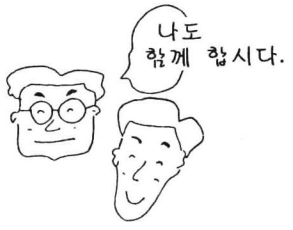
5. 결 론

영국은 산업보건활동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규제 중시형이라고 생각되는 불란서나 네덜란드 등과는 명백히 다르다. 영국의 산업보건제도는 이념형의 법체계와 기업에 위임하는 주체성, 자율성에 그 특징이 있다. 최근 구주공동체 통달에 따른 의무가 생겨서 금후 어떠한 형태의 산업보건관련 법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 방향으로 시도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기분을 좋게 몸을 펴서 운동을 즐겁게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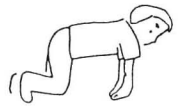
올바른 맥박재는 법

손목의 동맥에 인지, 중지, 약지의 세손가락을 대고 잽니다. 15초간 측정해서 4배를 합니다.



양발의 바닥을 붙이고, 발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누른다. 양무릎을 바닥에 닿도록 하여 넓적다리의 안쪽을 늘려 준다.

다리를 펴고, 발끝에 타올을 걸어 잡아당긴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면서 장딴지를 늘려준다.



손바닥을 돌려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듯이 뒤로 움직여 팔의 안쪽 근육을 늘려준다.

발을 들어올린 자세로 앉아서, 한쪽 무릎과 뒤쪽을 잡는다. 천천히 손을 앞으로 당겨서 넓적다리 뒤쪽의 근육을 늘려준다.

한쪽 무릎을 접어 구부리고 엉덩이에 붙힌다. 천천히 상체를 뒤로 쓰러뜨려 넓적다리 바깥쪽 근육을 늘려준다.

배를 펴고, 벽에 등을 대고 앉는다. 양발을 될 수 있는대로 벌리고 15-30초간 넓적다리 안쪽의 근육을 늘려준다.

한발은 뒤쪽에, 한쪽 발은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바닥에 붙인다. 엉덩이를 떨어뜨리면서 다리의 근육을 늘려준다.

발목을 꺾거나, 돌리거나, 늘려준다. 이때 다리에 힘을 빼고 자세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TV나 음악을 즐기면서 몸펴기